

광주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본격 가동

국내 유일 친환경차 인증센터...시간·비용 절감 기대

강 시장 “광주, 친환경 자동차 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서”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광주시는 24일 빛그린산단에서 강기정 시장과 정무장 시의회 의장, 이윤빈 국회의원, 엄성복 한국교통안

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한 친환경자동차(전기차) 관련 인증센터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아 운영한다.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는 2019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95억·시비 199억 등 총 394억 원의 예산을 투입, 배터리·충격·충돌·화재 등 시험동 건물 4개동과 시험장비 26종을 구축하는 사

업이다.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는 충격시험동에 충격·충돌 안전성평가 장비 등 8종을 새롭게 도입,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배터리 시험의 경우 강화된 국제 기준에 맞춘 진동·충격·낙하·연소시험 등 12개 항목 시험이 가능한 곳은 광주 인증센터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의 연계를 통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증업무를 빛그린산단 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관련 부품기업의 시간·비용 절감을 통한 빛그린산단 활성화와 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센터 개관으로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며 “미래차 전환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증가 속도에 맞춰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부품 인증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다. 센터와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특화단지, 그린카진흥원이 있는 이곳은 광주의 인증과 실증의 보금자리이자 미래 먹거리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완도, 해양치유·바이오산업 메카로 우뚝”

김영록 지사, 완도서 도민과의 대화...지역 발전 비전 제시



김영록 지사는 지난 24일 “청정 바다 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오늘) 개관한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기후·문화 치유센터, 바이오 산업과 웰니스(Wellness) 관광산업의 융합으로 향후 3만명 이상의 일자리와 4조2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해양치유 시설로는 국내 최초로 건립된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3년 공사 끝에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에 문을 열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해양치유산업의 서막을 연 해양치유센터 개관은 완도군 역사의 중대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완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영록 지사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완도 발전 비전 제시에 나선 김 지사는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국내 최대 난대림을 완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해양치유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2031년 개원을 목표로 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완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완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지난 8월,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만큼 하루빨리 전체 구간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국도로 승격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230년)에 반영되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 호 기자



강기정 시장과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개관식이 열린 24일 오후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유흥준 교수와 떠나는 ‘남도문화유산답사 1박2일’

100명 초청...전남방문의 해·답사기 발간 30주년 맞아 마련

전남도가 오는 12월9~10일 강진·해남·영암을 무대로 ‘남도문화유산답사 1박2일’ 행사를 진행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남방문의 해’와 유흥준(전 문화재청장)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발간 30주년을 기념해 전남관광플랫폼 이벤트로 마련했다.

유 교수가 직접 참여해 문화유산 답사와 특강,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발간 30주년 기념 다이제스트판’ 저자 사인회를 연다.

행사 참가자는 전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지·숙박·맛집·식사 온라인 정보제공 예약·결제 앱인 전남관광플랫폼(J-TaaS)을 통해 100여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1박2일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는 전용버스와 남도의 특별한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식사·숙박·입장료가 지원된다.

첫날 나주역에서 출발해 해남 대흥

사, 고산 윤선도의 녹유당을 거쳐 강진 김영랑 시인 생가, 정약용의 첫 유배지인 사의재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유 교수의 특강이 이어진다.

이튿날은 백련사 동백림과 다산 초당을 거쳐 호남3대 정원의 하나인 백운동 원림과 영암 도갑사, 구림마을을 여행한다.

답사 참가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전남관광플랫폼(J-TaaS)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지정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소 2인부터 최대 4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을 제외한 타지역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연 등을 심사해 최종 1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관광플랫폼은 전남지역 유명관광시설·체험 프로그램과 KTX·고속버스 등 교통서비스는 물론 숙박·미식·관광정보 등 시간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국내 최초 원스톱 복합결제시스템이다. /김 호 기자

전남 ‘SNS 역대급 성과’...국내 3대 시상식 석권

올해의 SNS·대한민국 SNS 대상·소셜아이어워즈 수상

전남도가 국내 3대 SNS(누리소통망) 시상식 석권을 통해 3관왕에 오르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24일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이 후원한 ‘2023 올해의 SNS’에서 유튜브와 블로그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 올해의 SNS’는 누리소통망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기업, 소상공인 등을 총망라 평가해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펼친 우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전남도는 이날 수상을 포함해 앞서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종합대상(과거부 장관상), ‘소셜아이어워즈 대상’ 수상까지 올렸만 국내 3대 SNS 시상식에서 3관왕 수상이라는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전남도는 2010년 7월 블로그를 시작으로 뉴미디어 시대 소통창구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채널을 운영 중이다.

도민이 알아야 할 정책과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쉬운 카드뉴스와 현장 사진 등으로 발 빠르게 알리고 재미있는 웹툰 콘텐츠 등으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계층의 누리소통망 서포터즈단 100명을 구성해 스토리텔링 기사로 전남 곳곳의 매력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전하고 있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SNS 채널 중에선 공식 유튜브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올해 구독자 수가 지난해보다 230% 증가한 6만1000명을 넘어섰다.

귀농산어촌과 장원에 성공한 도내 청년의 돈 되는 ‘전라남도’, 정책홍보 ‘1분 컷’ 등 다양한 소통 콘텐츠를 선보여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평일 오전 6시~밤 9시 단속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에서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도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전면 제한,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퇴출시켜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그 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광주시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

스 5등급 차량이 12월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밤 9시 사이 운행하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단속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해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의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손인규 시 기후대기정책 과장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는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며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일상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